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저노피 JEONOPI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주 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주 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장 소	인천광역시 및 인근 도시
참가규모	42개국 6,000여명 (선수 4,500명, 임원 1,500명)
홈페이지	www.incheon2014apg.org
S N S	blog / 2014apg

드노피 DEUNOPI

© 2014 Incheon Asian Para Games Organizing Committee PRINTED IN KOREA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3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39 / 2013.11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12

22

24

30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Cover Story

인천의 11월은 컬러풀합니다.
오색 단풍으로 알록진 산과 함초로 붉게 물든 바다까지
지금 인천에 오시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컬러를 만나게 됩니다.
단지 시각만 자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면은 더 뜨겁게 알록달록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 가득 컬러풀한 가을을 담으세요.

作 김기충 010-5131-3146

CONTENTS

04 **소통과 화합**
06 **가을바다** 바다약초 함초
10 함초요리
12 **강화 역사산책** 역사문화 여행지 10선
16 강화고려역사재단
18 **포커스** 청라 로봇랜드
22 청라국제도시
24 **김장** 배추농사 짓는 인천 도시농부
26 김장철 인천채소
28 **아름다운 사람** 패션디자이너 김 테일러
30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전동밥상' 집 백반
34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36 **문화뉴스**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外
38 **시정뉴스** 국제기구 잇달아 유치 外
42 **의정뉴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장 방문 外
44 **생활정보**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外
48 **이달의 서평**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外
49 **인천사는 이야기** 자유공원 아래 이야기 外
50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소래
56 **제94회 전국체육대회**
58 **모닝 커피 한잔**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06 가을, 바다에 단풍 들다

가을이면 붉게 타오르는 건, 단풍 만이 아니다. 바람이 소슬해지면 함초가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고 회색빛 융단을 붉게 붉게 물들인다. 아름답고 광활한 갯벌을 품은 인천은 곳곳에 함초가 군락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초 농장도 있다. 바다의 맑고 건강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바다의 약초'를 캐러, 인천의 갯벌로 간다.

18 '재미와 환상' 로봇 세상이 온다

미래공상 과학을 상상하면 으레 로봇이 떠오르던 시대가 있었다. 로봇태권브이, 마징가Z, 짱가 등은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무적의 로봇들이었다. 로봇의 인기는 세대를 초월한다. 인천이 재미와 환상이 가득한 로봇의 세상이 된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년 11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양진수(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창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콜택시 2인1차제 교대차량의 운전자입니다. 인천택시콜택시 보조금을 차량대수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개인별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천 콜택시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 1대당 월 35콜 이상일 경우 2만원, 월 50콜 이상이면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작은 기쁨으로 큰 행복을 이루는 하루되세요.

부평시장역에서 취객을 도와준 훈남 공익을 칭찬합니다.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취객을 도와 주더라고요. 9시 25분경 계양행 열차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451–2856~7)와 부평시장역 역사 담당자(512–3119)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가 열리는데 그에 따른 준비로, 주변의 노점상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평구 노점상 단속 담당자(509–6784)에게 확인한 결과,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천시청역은 복잡하네요. 제발 길목에 앰프를 놓지 말라고 해주세요. 땀 뻘뻘 흘리며 축구까지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의사항은 역사 내 문화마당을 관리하는 인천교통공사 고객만족센터팀(451–2164)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김포까지 택시를 종종 이용하는데 택시비가 기사 마음입니다. 시외할증은 20퍼센트인데, 그 금액보다 더 부르고 아니면 안 가겠다는 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사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불편 신고는 120미추홀콜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택시 전체 차량번호 및 몇 가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편한 시간에 032–120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퇴근을 해야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요. 36번 막차가 언제 오나요.

반갑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부성여객에 알아본 결과 36번 버스의 막차 시각은 기점(방파제 입구)기준 23시이며, 종점(숭덕여중고 입구)기준 23시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세요.

중국에서, 2014 인천AG를 응원합니다

독자 허일신(대련시 파견공무원)

허일신님은 중국 대련시에서 인천시로 파견을 나왔던 교환공무원입니다. 인천시청 국제협력관실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인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지난 2007년 1년 동안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은 제게 있어 제2의 고향과 같이 정겨운 존재입니다.

〈굿모닝인천〉이 좋은 이유 인천시에서 매달 빠짐없이 〈굿모닝인천〉을 보내 주어 잘 읽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인천을 지켜볼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근무했던 2007년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해입니다. 유치결과를 발표하던 그날, 저도 사무실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정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를 기대합니다. 인천 파이팅!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

바다에 단풍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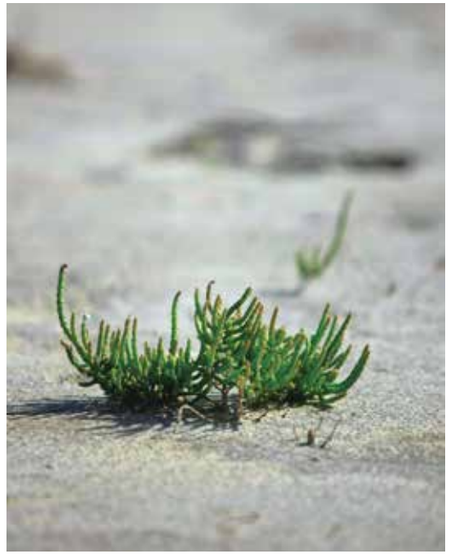
가을이면 붉게 타오르는 건, 단풍 만이 아니다. 바람이 소슬해지면 함초가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고 회색빛 융단을 붉게 붉게 물들인다. 아름답고 광활한 갯벌을 품은 인천은 곳곳에 함초가 군락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초 농장도 있다. 바다의 맑고 건강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바다의 약초'를 캐러, 인천의 갯벌로 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회색빛 갯벌 위 붉은 꽃밭

영종도 가는 길, 함초와 칠면초 군락이 붉게 타오른 갯벌이 아득히 펼쳐진다. 영화 '취화선'에서 장승업이 첫사랑을 잃은 아픔을 안고 휘적휘적 걷던 바로 그곳이다. 잔잔한 가을의 일상을 흔드는 풍경.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던 노을이 붉은 융단 위로 서서히 스며들면, 아름다움을 넘어 숭고함까지 느껴진다.

바닷가와 바다호숫가 등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염생(鹽生)식물'이라고 한다. 세계 5대 갯벌을 품은 인천에는 칠면초, 함초, 해홍나물, 나문재 등 수많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영종대교 건너 영종도로 가는 길에 붉게 물든 조간대는 인천 최대의 염생식물 군락지다. 이와 함께 강화 동검도와 선두리 사이에 있는 조간대를 비롯해 영흥도, 덕적도, 무의도, 교동도, 신·시도, 무의도, 소래 폐염전 등에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잡풀에서 '바다약초' 로

염생식물은 바닷물의 좋은 성분은 쑥쑥 빨아들이고 나쁜 성분은 광합성으로 날려보낸 바다의 영양덩어리다.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등 천연 미네랄을 한가득 품고 있어 '바다의 약초', '바다의 보약'이라 불린다. 일찍이 영종도에서는 칠면초 씨를 받아 콩나물처럼 싹을 틔워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약초나 나물로 사용했을 뿐 흔히 쓸모없는 잡풀로 여겨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염전에 그늘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함초(鹹草)다.

'짠맛이 나는 풀'이라는 뜻의 함초는 줄기의 마디 사이가 통통하게 부풀어 있어 우리말로 '퉁퉁마디'라고도 불린다. 함초는 가장 무거운 염생식물로, 그 어느 식물보다 식이섬유와 천연 미네랄을 담뿍담뿍 머금고 있다. 고대 의학서인 중국의 〈신농본초경〉과 일본의 〈대화본초〉에 염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민간에서는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고 병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어 약초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몸속의 중성지방과 숙변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그 이로움이 다시 주목받으며 함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러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 함초를 기르는 농장도 생겨났다.

저어새 날아드는, 우리나라 최대 함초농장

강화도 남단 여차리, 56만2천여㎡(17만평)에 이르는 갯벌 위 붉은 꽃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푸른 물결 옆 붉디붉은 물결이 금방이라도 품으로 달려들 것만 같다. '강화저어새함초농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초 농장이다. 이곳에서 나는 농작물은 함초로 유명한 전남 신안으로도 팔려나간다.

"강화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어 함초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새우양어장을 농장으로 개조하였는데,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개펄이 맑고 깨끗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도 자유롭게 날아들지요. 그 안에서 자연 그대로 함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장의 성기상 대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체 쓰지 않고 함초를 기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기농'이냐고 물으니, 물만 대어줄 뿐이지 그냥 '원시' 상태에서 혼자 자란다고 답한다. 그야말로 햇살, 바다, 바람… 자연이 빚어낸 순수한 결정체, '바다의 선물'인 셈이다.

강화 함초농장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

함초는 6월부터 어린순이 올라와 7,8월 한여름이면 초록 마디가 굵게 자라고 가을이면 붉게 단풍이 든다. '강화저어새함초농장'에선 때마침 가을 추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붉은 함초는 가루, 환 등으로 2차 가공을 해 판매한다. 농장에서 자란 함초로 만든 환과 가루는 인터넷과 농장에서 3만원 선에 구입할 수 있다.

농장에서 함초를 직접 재배하는 기쁨을 누리면 더욱 좋다. 별도의 체험비 없이 함초 1킬로그램 당 1만원에 재배해 갈 수 있다. 정이 담뿍 담긴 덤에 에누리는 기본이다. 농장은 재배한 함초를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함초요리 강습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함초를 따다 지치면, 저어새가 날아드는 풍경이 맑은 땀방울을 씻어줄 것이다. 농장을 따라 길게 난 강화 나들길 7-1코스를 거닐어도 좋다. 한 편에 붉은 함초, 한 편에는 물 빠지면 갯벌 물 차면 푸른 물결을 두고 걷노라면 마음이 절로 힐링된다.

강화저어새함초 ghhc.co.kr, 070-8654-9805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143-15

함초 잡채

함초 새우전

함초 비빔밥

함초 전병말이

바다가 버무려져 넘실대는

함초요리

함초는 바닷속 천연 미네랄이 담뿍 담긴 '바다의 약초'다. 풍미도 뛰어나다. 처음에는 짠맛이 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감돌다 입 안 가득 은은하게 번진다. 바다가 고스란히 버무려져 넘실대는 함초요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식탁에 올린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함초 잡채

명절상에 꼭 오르는 잡채에 함초를 넣으니 더욱 특별한 메뉴가 됐다. 부드러운 당면과 아삭한 함초의 만남이 입 안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당면 150g, 함초 70g, 느타리버섯 150g, 당근 1/3개, 양파 20g, 달걀 1개, 소금, 식용유, 참기름, 통깨, 양념장(함초효소액 4큰술, 간장 3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2큰술)

❶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불린 다음,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삶아 물기를 뺀 후 양념장에 버무려 볶은 다음 식혀준다. ❷ 함초는 여린 순으로 준비하여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버무려 둔다. ❸ 느타리버섯은 깨끗이 손질한 후 끓는 물에 데쳐 헹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간장, 함초효소액, 참기름과 버무린다. ❹ 당근 · 양파는 당면 굵기로 채 썬 다음 기름에 볶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❺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소금간을 하고 지단을 부쳐 5㎝길이로 채 썬다. ❻ 볶아둔 당면과 준비된 재료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서 접시에 담는다.

함초 비빔밥

고슬한 밥에 아삭아삭한 채소만 푸짐하게 썰어 넣어도 한 그릇에 영양이 그득히 담기는 비빔밥. 함초를 넣어, 더없이 훌륭한 요리로 완성했다. 채소와 함초가 어우러져 입 안 가득 싱그러움이 퍼져 나간다.

쌀 한 컵, 함초 30g, 애호박 50g, 도라지 50g, 당근 30g, 달걀 1개, 소고기 100g, 다시마 1쪽(5X5cm), 약고추장(다진 소고기 1큰술, 고추장 1큰술, 설탕 1/2큰술, 다진 파 2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후추 약간)

❶ 쌀을 불려서 밥을 짓는다. ❷ 함초는 깨끗이 손질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5㎝ 길이로 자른다. ❸ 애호박은 5㎝ 길이로 잘라 돌려깎은 다음 채 썰어 절인다. ❹ 당근 · 도라지는 5㎝ 길이로 채 썰고 도라지는 절여서 쓴맛을 제거한다. ❺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5㎝ 길이로 채 썰어 갖은 양념을 한다. ❻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간하고, 지단을 부쳐 5㎝ 길이로 채 썬다. ❼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각 재료를 순서대로 볶아낸다. ❽ 약고추장을 볶는다. ❾ 그릇에 밥을 담고 각 재료를 색상별로 담고 약고추장을 얹어 낸다.

함초 새우전

함초와 새우가 만나니, 짭조름한 바다의 풍미가 더 하다. 각종 채소와 함초를 갈아 넣어 초록으로 곱게 물든 반죽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우를 얹어 곁들인다. 푸릇푸릇한 싱그러움으로 꽉 찬 한 접시.

함초 30g, 새우 10마리, 홍고추 1/2개, 식용유, 밀가루, 소금

❶ 함초는 깨끗이 손질하여 곱게 갈아 놓는다.
❷ 새우는 내장과 물총을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해 둔다.
❸ 청·홍고추는 작은 입자로 다져둔다.
❹ 갈아둔 함초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만든다.
❺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적당량의 반죽과 새우를 넣어 익혀 낸다.

함초 전병말이

함초를 갈아 넣은 전병에 아삭한 채소를 올려 쌈을 만들고, 여기에 겨자 소스를 곁들여 상큼함을 더 했다. 바다 향기 한껏 나는,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한 입.

함초 30g, 부침가루 200g, 청오이 1/2개, 당근 1/3개, 소고기 100g, 달걀 1개, 무 100g, 겨자즙(겨자 1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 간장 1작은술, 우유 1큰술)

❶ 오이를 돌려 깎은 다음, 무, 청오이와 함께 5~6㎝ 길이로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제거하고 볶는다. ❷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지단을 부쳐 5~6㎝ 길이로 채 썬다. ❸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곱게 채 썰어 갖은 양념하여 볶는다. ❹ 함초를 곱게 갈아 부침가루를 넣고 전병 반죽을 만든다. ❺ 팬을 달궈 기름을 두르고, 적당량 반죽을 떠 넣어 동그랗게 부쳐낸다. ❻ 겨자즙은 분량대로 섞어 체에 내려 용기에 담아낸다. ❼ 전병에 각 재료를 색상별로 담아 돌돌 만다. 겨자즙을 곁들여 낸다.

함초 요리,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함초는 6월부터 어린순이 올라와 7,8월 한여름이면 초록 마디가 굵게 자라고 가을이면 붉게 물든다. 난 시기에 따라 풍미와 요리법이 다르다. 초기에 난 새순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다. 바다의 짭조름한 맛이 배어 있어 참기름과 깨소금만 넣고 조물조물 무쳐도 훌륭한 요리가 완성된다. 우유나 요구르트를 넣고 갈아서 음료로 즐겨도 좋다. 여름 볕을 받고 뻣뻣해진 것은 가루를 내어 물에 타 먹거나 소금 대신 음식에 넣어 사용한다.

함초 구입 및 보관

줄기에 마디가 많고 통통한 것이 좋은 함초다. 구입한 함초는 냉장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다. 오래 두고 먹을 요량이면,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헹군 다음 소량씩 팩에 담아 냉동보관 한다. 보관온도는 0~-20℃, 보관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요리 및 도움말 **임현순 요리연구가**

인천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식 · 양식 · 중식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천여성복지관에서 한식조리전문 과정을,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밑반찬창업반과 양식조리전문가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전등사

짙어가는 가을보다

더 깊은 역사의 향기

강화는 역사의 섬이다. 선사시대의 고인돌, 단군의 참성대, 고려, 조선의 역사를 한가슴에 다 품고 있다.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이 추천하는 강화 역사문화 여행지 10선을 소개한다. 짙어가는 가을, 더 깊은 역사의 향기를 따라 길을 나선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강화고려궁지

마니산 참성단(사적 제136호)

마니산은 우리나라의 영산 한라산과 백두산의 정기를 고스란히 전해 받은 한반도의 배꼽이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참성단이 있다. 제단은 아래에 둥근 돌을 쌓고 위에 네모반듯한 돌을 올려 만들었다. 둥근 하단은 하늘을 네모난 상단은 땅을 상징한다. 그러한 뜻이 오늘에도 이어져, 참성단에서는 해마다 개천절 제천행사를 열고 전국체전 성화를 채화한다.

위치 :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강화고려궁지(사적 제133호)

고려는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항쟁에 들어간다. 1234년 급히 궁궐을 세우고 왕을 모신 곳이 고려궁지다. 궁터를 돌아보면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았을 국난의 역사에 마음이 짠해진다. 궁궐과 성은 39년 동안 사용하다 다시 수도를 옮기면서 허물었다. 이후 조선 인조 9년에 행궁을 지었다 병자호란 때 함락되고, 그후 강화유수부의 건물을 지었으나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져 지금은 동헌과 이방청 만이 남았다.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강화산성 북문(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은 고종이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다. 내성 · 중성 ·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천200m로 지은 내성이 지금의 강화성이다. 성문은 동서남북에 4개소가 있고 암문이 4개소, 수문이 2개소 있었다. '진송루' 현판이 걸린 북문은, 특히 가을이 아름답다. 성문 옆에 수문장처럼 빨간 단풍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성문 누각에 올라 북녘 땅을 바라보면, 바로 앞에 남한의 평야가 멀리 북한 개풍군 산야가 시야를 가득 메운다.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연미정

고인돌공원 강화지석묘

고인돌공원 강화지석묘(사적 제137호)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 역사의 편린을 쫓아 구석구석을 훑으며 시간여행을 한다. 고인돌공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강화지석묘가 있다. 강화지석묘는 큰 탁자식 고인돌로 전체높이 2.6m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기나긴 세월 묵묵히 쌓인 고대문명의 현장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공원 한 편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담은 강화역사박물관이 있다. 구석기시대의 주먹찌르개, 청동기시대에 흙으로 만든 그물추와 돌칼, 화살촉 등 선사시대의 자취가 묵은 먼지를 털고 우리 앞에 섰다.

위치 :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강화 평화전망대

짧은 물길 하나 건너면 가깝고도 먼 북녘 땅이다. 양사면 철산리는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들어가려면 해병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강화 평화전망대는 그 마을 야산 중턱에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 서서 북한과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인다. 왼편으로는 예성강이 흐르고 오른편으로는 서해로 내려가기 전 임진강과 한강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푸른 물결이 욕심도 이념도 다 부질없다는 듯 햇살 아래 넘실거린다.

위치 :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6-1

전등사 삼랑성(사적 제130호)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서린 삼랑성. 정족산성이라고도 한다. 만들어진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곽이 쌓여진 모습이 삼국시대 성의 구조로 그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은 고종 3년 병인양요 때 동문과 남문으로 공격해 온 프랑스군을 무찌른 곳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강화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열린다.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일원

강화산성 북문

고종 홍릉

마니산 참성단

성공회 강화성당

광성보

강화 평화전망대

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서양 기독교문명과 한국 전통문화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1900년 역사를 시작했다. 천주성전(天主聖殿)'이라고 쓰여진 현판, 단청으로 처리된 서까래, 팔작지붕에 올라앉은 용머리 등 한국 전통문화의 요소가 곳곳에 스며있다. 성당임을 보여주는 것은 지붕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 뿐이다. 강화성당은 1910년대까지 강화지역 선교의 중심이었으며, 성공회 신학교가 이곳에 설립된 이후 성공회 한국선교의 중심역할을 했다.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고종 홍릉(사적 224호)

고려산을 오르다보면 고려 23대 임금인 고종의 무덤 홍릉이 나온다.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문화유산의 손실 또한 매우 컸다. 고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려대장경을 만드는 등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무덤 모서리에 짐승을 조각한 돌이 1개씩 배치되어 있었으나 없어지고, 현재는 사람 모양의 돌조각 2구가 남아있다. 입구에 제사를 준비하던 재실로 쓰인 한옥 건물이 하나 있다.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

광성보(사적 제227호)

강화는 아픈 땅이다. 5진 7보 53돈대는 상처의 흔적.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치른 투쟁의 자국이다. 광성보는 덕진진, 초지진, 용진진, 제물진, 월곶진 등과 함께 강화 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였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1233년부터 1270년까지 바닷길을 따라 길게 외성을 쌓았다. 이후 광해군 때 다시 고쳐 지은 후 효종 9년에 광성보가 처음 세워졌고, 숙종 때 일부를 돌로 고쳐서 쌓았다.

위치 :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연미정(인천 유형문화재 제24호)

선인이 자연 안에서 풍류를 즐기고 학문을 배우던 정자 연미정(燕尾亭), 제비꼬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물의 끝점과 바다의 시작점이 만나는 절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 안에서의 달맞이는 강화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절경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아픈 역사가 흐르고 있다. 연미정은 인조 5년 정묘호란 때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남과 북을 가로막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외로이 있다. 역사의 상처가 아름다운 풍경과 교차되어 더 아프게 다가온다.

위치 :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고려역사의 숨결,

세계로 불어넣다

경주, 부여, 공주 만이 고도(古都)가 아니다.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39년간 고려의 수도 역할을 한 강화에는 고려역사의 숨결이 오롯이 스며 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출범했다. 재단은 강화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세계에 알리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고려역사 깊숙이 스민 땅

강화도에는 천년바람이 유유히 흐른다. 단군의 정기가 서린 강화는 고조선, 고려, 조선의 역사를 아우르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특히 몽골의 말발굽을 피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고려의 수도로 기능하며 우리나라 역사의 긴긴 페이지를 차지했다. 그래서 고려궁지, 강화산성, 고려 고종의 홍릉, 선원사지 등 발길 닿는 곳마다 고려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쉰다.

강화가 갖는 민족사적 가치와 고려문화권의 역사적 의미를 비추기 위해 지난 9월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재단은 앞으로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의 역사문화를 조사·연구하여, 그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알릴 계획이다. 고려의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역사재단으로 그 역할에 기대가 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꿈꾸며

강화고려역사재단은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 · 조사할 계획이다. 고려역사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강화에 산재한 유적을 조사하고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연다. 특히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강화의 고려사를 연계한 남북학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도에 흩어진 고려유적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아울러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강화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포부도 안고 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록된 것처럼 강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뜻이다. 강화 고려역사의 문화적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려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천년 바람 맞으며 역사여행

역사는 책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재단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역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화역사 중심의 인문사회 분야 강좌를 열 계획이다. 역사전문가로부터 긴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유적지를 둘러보는 심도 기행도 진행한다. 또 자연 안에서 천년 바람을 맞으며 역사를 살갗으로 접할 수 있도록 강화역사 캠프를 연다. 인천 시민뿐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강화고려역사재단 455-7178

interview

강화 고려역사의 가치 바로 세울 터

박종기 강화고려역사재단 대표이사

강화고려역사재단은 강화 고려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 ·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강화역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의 역사교류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이사로는 고려사 전문가로 잘 알려진 박종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강화는 39년간 고려의 수도로서의 기능했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강화 고려사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박 대표는 재단이 활동하는 데 있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단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재단의 활동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화 고려역사 가치를 빛낼 강화고려역사재단 사람들

‘재미와 환상’

로봇 세상이 온다

미래공상 과학을 상상하면 으레 로봇이 떠오르던 시대가 있었다. 로봇태권브이, 마징가Z, 짱가 등은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무적의 로봇들이었다. 로봇의 인기는 세대를 초월한다. 최근 선보인 트랜스포머, 아이언맨 등의 영화시리즈부터 춤추고 농구하는 로봇까지 로봇은 꿈과 희망, 판타지의 대상이다. 인천이 재미와 환상이 가득한 로봇의 세상이 된다. 청라국제도시에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신기하고 놀라운 로봇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지구촌의 부러움을 살 것으로 보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로봇랜드는 2016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한다. 주요시설로는 로봇산업진흥시설(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과 유원시설(테마 · 워터파크), 부대시설(콘도, 상업시설)로 크게 3개 섹터로 구성된다. 로봇산업진흥시설은 2015년까지, 유원시설과 부대시설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한다. 로봇랜드는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로 청라국제도시 76만7천㎡에 약 7천5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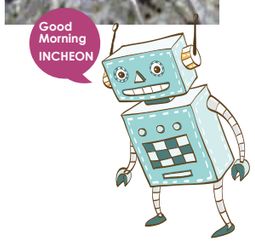
'로봇킹덤' '키봇빌리지' 등 테마관 열어

로봇산업진흥시설은 로봇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시험무대로 수요창출이 주목적이다. 대규모 집적시설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로봇랜드를 국가 지능형 로봇분야 아이디어의 보고로 조성한다.

테마파크는 3개 영역을 통해 로봇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로봇의 교육, 엔터테인먼트, 하이테크가 하나를 이루도록 꾸며진다.

첫 번째 영역은 '로봇킹덤'이다. 최신식 로봇공학 기술로 채워진 미래 로봇왕국이다. 로봇역사관은 각 시대별 로봇의 발전 과정을 로봇제품, 인공구조물, 미디어, 사진 등으로 보여주며 인터렉티브하게 체험할 수 있게 꾸며진다. 파빌리온은 로봇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에듀테인먼트 등 로봇랜드의 개발 취지에 부합하는 파빌리온 형태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형태다. 로봇게임아레나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다목적 컨벤션센터로 국제적인 로봇배틀 경기장, 게임, 공연, 전시 등의 행사가 이뤄진다.

두 번째 영역은 '키봇빌리지'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산업혁명의 근간이 된 증기와 기어, 용수철로 동력을 삼은 도구들이 콘셉트다. 과거 로봇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빅휠, 회전목마, 회전식 롤러코스터 등을 로봇테마와 결합해 아이들과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게 놀이기구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은 '로봇시티'다. 미래의 로봇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초현대적인 도시가 콘셉트다.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의 인기게임에서 본 로봇들을 접목하여 다이내믹하고 하이테크적 공간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선 워터라이드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신나는 모험을 즐길수 있다. 또 물고기, 해파리, 가재로봇 등 각종 바다생물 로봇을 보고, 제작하며 체험할 수 있는 로봇 아쿠아리움도 첨단과학의 신기함을 보여준다. 로봇 퍼레이드, 로봇 캐릭터를 한자리에 볼 수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로봇의 역사

'로봇'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카렐 차페크다. 1920년에 그가 쓴 희곡 'R. U. R.(Rossum's Universal Robots)'에서 '로보트'가 처음 사용되었다. 차페크는 체코어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 'Robots'에서 이 말을 따왔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봇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로봇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병원에서 담낭 절제수술을 한다. 어디 그 뿐인가. 로봇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안이나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로봇은 더 이상 자동인형 이야기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허황된 존재가 아니다. 로봇은 점점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안겨 준 이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탄생신화를 가지고 있을까. 1972년 일본에서 제작된 '마징가Z'은 어린이들에게 로봇의 유행을 불러있으켰고, 1976년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만화영화 '로보트태권V'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 〈메트로폴리스〉, 〈우주소년 아톰〉 등의 로봇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며 친숙해졌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예술가들은 로봇의 미래모습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모습까지 앞서 고민하며 과학자들의 로봇개발에 적지 않은 자극과 영감을 제공했다.

첨단 기계문명의 총아 로봇. 그 고향은 다름 아닌 인간의 상상력이었다. 소설과 영화 속에서 상상의 기계로 등장하는 로봇은 대개 인간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의 로봇들도 점점 인간을 닮아가며 진화하고 있다.

50개 기업체, 연구기관 들어서 연 4천명 일자리 창출

부대시설로는 로봇테마와 연계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비즈니스를 위한 숙박시설이 운영된다.

우리시는 인천로봇랜드에 50여 개의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들어서면 연 4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7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랜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산업의 총아인 로봇을 구경함은 물론 대단위 쇼핑몰인 신세계백화점 등과 어우러져 놀이와 쇼핑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보석’

국제도시 별이 되다

‘푸른보석’ 청라국제도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청라국제도시는 물을 도시의 기반요소로 삼고, 스포츠와 레저를 겸비한 세계적인 국제업무(금융)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청라는 핵심사업인 하나금융타운, 신세계 복합쇼핑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제도시로의 규모와 명성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 물의 도시답게 도시를 관통하는 커널웨이(주운수로)는 청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으며 도시의 명소가 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청라국제도시는 홍콩과 같은 국제업무, 금융, 관광·레저·스포츠, 로봇랜드, 골프장, 외국인학교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근간으로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움직이는 또 다른 중심축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처음 개발계획과는 달리 진척이 더딘 측면이 있지만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청라 IHP(인천 Hi-Tech-Park)사업이 속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다소 지연되었던 IHP조성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면 도시첨단산업 단지와 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가 된다. IHP는 113만㎡부지에 자동차, 신소재, 로봇관련 연구, 개발 등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져 국제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갖춘다.

청라국제도시의 또 다른 핵심사업은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청라국제도시 2블럭 16만5천㎡부지에 조성되는 쇼핑, 문화, 레저공간으로 총 사업비는 3천5백억원을 투입한다.

금융허브 청라국제도시의 새로운 기대주는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이다. 하나금융타운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그룹 본사와 금융연구소, 인재개발원, 복합IT센터, 업무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하나금융타운은 12월초에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하여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1년내에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공사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청라는 물의 도시답게 도시를 관통하는 물길이 만들어져 이국적 운치를 더하고 있다. 청라 콘셉트의 하이라이트는 커널웨이(주운시설)다. 가로 폭이 10m, 수심이 1~1.5m의 물길이다. 커널웨이의 길이는 동서 3㎞, 남북 1.5㎞로 아름다운 물길이 펼쳐진다.

이미 완공된 커널웨이 중앙호수공원~심곡천 구간은 벤치, 다리, 호수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 가을 따듯한 햇볕을 받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2단계 구간도 완공되어 제2문화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커널웨이는 중앙호수공원과 연결되어 아름답고 정감있는 수변공간을 연출한다.

중앙호수공원은 69만3천㎡ 규모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커널웨이를 포함한 규모만도 106만㎡로 일산호수공원(103만㎡)보다 넓으며 201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수공원에는 작은 섬 두 개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순환산책로 4㎞, 교량 8개, 선착장 4개, 대형음악분수, 주차장 4개, 물속광장, 습지원, 잔디광장, 공연테크, 바닥분수, 운동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와 레저공간으로 활용된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는 인구 유입속도가 빨라지며 활기를 띠고 있다. 3년 전 입주초기와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고 아파트는 거의 입주가 끝난 상태다. 청라의 당초 계획인구는 9만명 선이지만 현재 6만6천9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송도국제도시 6만6천2백여명을 뛰어 넘었다.

교통도 좋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서울진입을 돕고자 지난 7월부터 BRT(Bus Rapid Transit)를 운행하고 있다. BRT개통으로 청라에서 서울까지 5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화곡역과 가양역 등에서 환승할 수 있어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권 진출도 쉬워졌다.

검암역으로 몰리던 청라주민들의 철도수요를 분산하고자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청라역이 생긴다. 청라역은 올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4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진다.

청라국제도시에는 2014년 제1호 문화공원과 중앙호수공원 내에 도서관이 문을 연다. 문화공간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청라시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도시는 국제도시로써 큰 발걸음을 한보 한보씩 떼고 있다. 인천 서북부의 발전을 견인할 청라의 날갯짓이 드디어 비상을 앞두고 있다.

탐스런 인천 배추,

올해도 풍년일세~

계양의 들판은 쪽빛하늘과 태양의 숨결을 받아 반짝이는 나무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옮겨 놓은 듯하다. 계양은 아직 농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너른 들판엔 가을의 대표 채소인 배추가 영양가득한 햇살을 받으면서 속을 꽉 채우고 있다. 11월은 김장의 계절.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의 손길만큼이나 배추를 키우는 인천도시농부의 일상도 김장철을 맞아 바삐 돌아간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주철(57)씨는 11월부터 12월초가 가장 바쁘다. 지난 7,8월에 파종한 배추가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철인 11월이 되면 배추는 노오란 뱃속을 꽉꽉 채우며 통통하고 탐스러운 몸을 선보인다. 김주철씨는 이때부터 김장철에 쓰일 배추들을 출하한다. 아침 5시부터 밭에서 배추를 뽑고, 배춧잎을 정리하고, 배추를 자르며, 소금에 절인다. 주문 들어온 물량을 체크하며 밭에서 바로 뽑은 싱싱한 배추를 예약한 분들에게 직접 배달한다. 농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배달까지해 소비자들의 기쁨은 더 크다.

김씨는 9천917㎡의 밭에 배추, 쪽파, 대파, 갓 등 김장채소 농사를 짓는다. 그의 밭에선 1만에서 1만5천포기의 배추가 생산된다. 작년에 비해선 배추농사 규모가 줄었지만 그래도 인천 내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농지가 남아있는 남동이나 계양인근에도 소규모로 배추농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개 집에서 먹기 위한 경우다.

김씨는 농부의 마음이 그렇듯 배추농사에 갖은 정성을 기울였다. 어린 배추모종을 '불면 꺼질까 쥐면 부러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30일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정성스레 기른 후 밭에 옮겨 심었다.

모종을 한 뒤에도 수시로 제초작업을 하고, 배추가 잘 크는지 보러 바람이 불어도 비가와도 배추밭을 쉼 없이 드나들었다. 배추는 농부의 고된 노동과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탐스럽게 잘 자라 주었다.

김주철씨 농원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달고 맛있다. 배추품종은 속이 노랗고 김장용으로 적합한 '추노'다. 이 품종은 병에 강하다. 배추 속이 노랗고 고소하며 아삭아삭해 김장배추로 많이 애용된다. 김장배추 크기는 4㎏정도가 적당하다. 김씨가 운영하는 신선한 농원의 배추가 맛있는 이유는 계양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황토흙 때문이다. 친환경 농법도 시민들의 신뢰를 높인다.

김씨는 김장철이 되면 절인배추를 팔아 소득을 올린다. 손도 많이 가고 힘도 들지만 부가가치가 높다. 배추는 그날 따서 절이기에 다른곳에 비해 신선하고 싱싱하다. 당일 배송으로 유통기간이 짧아 김치맛도 좋다. 배추는 직거래로 이뤄진다. 배추가 맛있고 싱싱해서 예년에 사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문하기에 판로는 걱정이 없다. 작년엔 11월 중순부터 주문을 받아 15일만에 배추를 모두 소진했다. 농원에서는 절인배추 뿐만 아니라 김장에 필요한 쪽파, 대파, 갓도 함께 판매한다. 직접 사러온 손님에게는 덤도 듬뿍이다.

도시농부의 하루 일과는 고달프다. 새벽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농작물을 보살펴야 한다. 땅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정성과 혼신을 다한 농작물은 생산량으로 보답해 왔다. 김씨는 내년에도 풍년을 고대한다. 고된 노동이지만 기름진 땅에서 정성을 다한 농산물이 인천 시민들에게 맛있게 건강하게 전달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문의 : 신선한 농원 010-6320-6477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갈 구입처

소래포구 젓갈시장

김장철이 되면 소래포구는 젓갈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서해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이다. 이때 쯤 소래포구에는 젓갈시장이 따로 열린다. 소래어촌계 부녀회가 서해에서 잡아 꿈틀거리는 새우를 염전해서 파는 직거래 장터다. 새우젓외에도 액젓, 멸치젓, 황석어젓 등 김장용 젓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어민들이 직접 잡은 새우젓이기에 싱싱하고 품질은 최고다. 새우젓은 3㎏ 1만5천원~2만원, 5㎏이 2만5천원~3만원선이다. 소래포구 젓갈시장은 12월까지 열린다.
문의 : 소래포구 어촌계 442-6887

강화 새우젓시장

임진강과 예성강 그리고 한강이 합류하는 강화도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껍질이 얇고 영양이 풍부해 전국으로 공급됐다. 데뜨기, 자젓, 오젓, 육젓, 추젓, 동백화 등 어획시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김장철이면 맛좋고 육질좋은 강화 새우젓을 사기위해 전국에서 상인과 관광객이 몰려들어 항구를 술렁이게 한다. 강화군은 외포리항에 젓갈시장을 연중 운영 하고 있다.
문의 : 강화도 내가어촌계 932-9337

산지서 출하해

싱싱함이 '가득'

김장철을 맞아 인천의 땅에서 태어나 자란 김장 채소들이 속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 물좋고 기름진 인천 땅에서 재배된 고추, 마늘, 쪽파, 순무 등은 빛깔이 맑고 산지에서 바로 출하되기에 싱싱하고 맛이 좋다. 또 인천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김장에 들어가는 젓갈 산지로도 명성이 높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용유 · 강화 고추

일조량이 많은 청정지역인 강화와 영종·용유에서 생산되는 인천 고추는 빛깔이 좋고 매콤하다. 여름철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단맛이 많고, 빛깔이 투명하고 고운 것이 특징이다. 영종도의 경우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고추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중산동, 운북동 등에서 소규모로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고추농사를 지었다는 이은영씨는 올해 고추 1천800주를 심어 80~100관의 고춧가루를 수확했다. 영종도와 강화도의 고춧가루로 김장을 하면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먹음직스런 빨강색이 김치의 맛을 더 풍요롭게 한다. 고추가격은 9만~11만원선. 올해는 고추풍년으로 예년보다 가격이 싸졌다.

강화마늘과 강화순무

강화마늘은 한지형 육쪽마늘로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다.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김치의 맛을 더욱 좋게한다.

강화 순무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오장에 이로우며 소화를 돕고 눈과 귀를 밝게 하고 기를 증진시킨다고 기술되어 있다.

생김새가 팽이모양으로 주로 보라색을 띠며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골패모양으로 썰어 강화 생새우와 버무려 담는 순무석박지는 대중적이고 시원하여 인기가 높다. 순무에 생밴댕이를 넣어 담은 밴댕이순무김치는 깊은 맛이 나고 향긋하다.

강화 농수산물 구입처

빛깔좋고 맛좋은 강화도 농수산물은 여러 경로로 판매된다. 농가는 나름대로 자기고객이 있어 주문을 받아 판매하지만, 주로 2,7일에 열리는 강화 5일장에서 손님을 만난다. 순무는 도로변, 강화풍물시장, 인삼센터 마당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어느때나 구입이 가능하다. 강화군은 11월초부터 1개월간 김장시장을 개설한다. 장소는 구 풍물시장터로 강화군에서 재배된 배추, 무, 순무, 고추, 파 등의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신포동은 내 영감의 원천"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그녀는 아름다웠다. 풍부한 브라운 컬러의 슈트를 입은 그녀에게선 커피 향이 감돌고 목소리에는 높은 가을하늘 같은 에너지가 있었다. 김 테일러(57), 그녀는 신포동의 패션 디자이너다. 한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트렌드를 가장 먼저 흡수했던 신포동은, 사진첩에 꽂힌 낡은 사진처럼 마음속에 저장된 그 시절의 추억으로 흘러갔다. 중심에서 변두리로 비껴난 신포동의 후미진 골목. 김 테일러는 신포동이 휘황찬란했던 30여 년 전이나 빛바랜 지금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순수한 열정은 늘 한결 같은 것, 그것이 그를 이곳 신포동에 지탱케 하는 힘이다.

"저를 예뻐하신 시아버지께서 83년 당시 인천 최고의 번화가인 이 자리에 의상실을 내주셨어요. 국제복장학원에서 의상 디자인을 배우고 인천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제 꿈을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패션 디자이너 김 테일러를 있게 한 신포동을, 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옷은 멋을 넘어 자신의 감각과 개성을 짧고 깊게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어릴 적부터 아름다움을 동경하던 소녀는, 어느 사람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리는 기성복이 아닌 음악선율처럼 몸을 타고 흐르는 맞춤옷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신포동에서 디자이너로 첫발을 내딛고, 특유의 섬세한 예술적 감성과 열정으로 이름을 알렸다. 맞춤 슈트를 즐겨 입을 여유를 갖춘 중견 사업가와 정치인 등이 그녀의 오랜 고객들이다.

명성이 쌓이자 유혹도 뒤따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동네라는 서울 청담동부터 송도 국제도시 등의 신도시에 숍을 내자는 제의가 이어졌다. 재주가 뛰어나면 더 욕심이 나는 법. 더 넓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려 급급해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는 인천 안에서도 충분히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인천은 오묘한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예요. 현대적인 도심, 오밀조밀한 골목, 하늘, 바다, 섬 이 모든 것을 한가슴에 품고 있지요. 제 디자인 콘셉트는 바람, 나무, 꽃 그리고 그 흔들림이예요. 언젠가 인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으로 나만의 패션쇼를 열고 싶어요."

어린 시절 종이인형을 오리며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소녀는, 신포동에서 그 꿈을 이뤘다. 그리고 그 아련한 추억 속 인천은,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 '디자이너 김 테일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가지 찬,

이 호사스런 백반 맛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일전에 한 독자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지난 호에 소개한 산곡동 국밥집 음식이 대단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 청진동 운운하는 말까지 했다. 좀 난감한 느낌이었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아니 그것을 먹는 입맛이, 백이면 백 이렇게 다 다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갖게 했다.

사실이지 이 세상 어디에도 중구(衆口)를 전부 만족시킬 음식은 없을 것이다. 조리사의 개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재료나 레시피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연령에 따른 입맛의 구별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곰삭은 젓갈을 젊은 층은 코를 쥐는데 늙은이는 영 입맛을 다신다.

어쨌든 짜다는 사람, 시다는 사람, 달다는 사람, 맵다는 사람, 거기에다 질기다, 푸석하다, 밋밋하다, 느끼하다, 풀어졌다, 딱딱하다, 구수하지 못하다, 감칠맛이 없다…, 구미(口味)가 제각각 얼마나 다른가?

3대에 걸쳐 30년 넘께 밥집의 역사

이번에는 연수구 연수동 626-8번지, 연화여중 후문 앞, 올해 마흔 아홉 살의 주인 이광호(李光鎬)씨가 경영하는 '전동밥상' 일명 '전동집'을 소개한다. 언뜻 '전통(傳統)집'으로 들리기 쉬운데, 그렇게 전통으로 들어도 좋을 것이 실제도 과거에 흔했던 상밥집 비슷하게 백반(현재는 잡곡 돌솥밥이다.) 상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 집의 특색은 옛 상밥집 타입을 조금 비껴 앞으로 나아갔다고 할까, 아니면 거꾸로 규모 큰 한정식 집 메뉴를 좀 줄여 놓았다고 할까.

상호에 전동이 쓰인 것은 주인 이광호 사장네 과거 거주지가 중구 '전동(錢洞)'이었던 데서 기인한다. 이 사장 모친이 거주지 전동을 상호로 써서 역시 같은 중구 송학동, 옛날 인천시장 관사 밑에서 한정식 집, '전동집'을 연 것이 시초였다. 이 사장 모친은 1997년 가게를 이곳 연수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운영했고, 이곳으로 이전해 와서는 이 사장이 상호 그대로 대를 이은 것이다.

물론 이 사장네 밥집 경영 이력은 이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장의 조모가 일찍이 하인천역(지금은 인천역이라고 한다.) 인근에서 빵을 쪄 팔고 국밥을 끓여 내는 밥집을 열었었고, 그 뒤를 이어 모친이 전동집을, 그리고 지금의 이광호 사장이 이어받아 결국 3대에 걸쳐 30년이 훨씬 넘는 밥집 역사를 쌓은 것이다.

점심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 동안 길 건너의 구청 공무원들, 인근 사무실 사람들이 들이닥친다. 한국 사람은 역시 신을 벗고 방바닥에 앉는 것이 몸에 배 편안한 모양인지 모조리 방으로만 들어가 앉는다. 하기야 상밥집은 목로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먹어야 제격일 터.

이윽고 찬이 차려진다. 입 속으로 세어 보니 무려 열네 가지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고등어구이와 조기조림이다. 워낙 비린 것을 좋아하는 까닭일 것이다. 고등어구이처럼 한국인에게 좋은 반찬거리가 또 있을까. 조기조림은 그 고소한 간장 맛이 더 침을 고이게 한다. 조기를 후딱 발라먹고는 양념이 녹아 있는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맛은 정말이지 상미(上味) 중의 상미다. 이 조기조림은 갈치조림으로 교대되기도 한다.

무침으로는 시금치, 시래기, 가지무침이 놓인다. 참지 못하고 시금치무침을 한 젓가락 집는다. 파래전은 또 그 빛깔만큼이나 맛이 상큼하다. 전 종류는 그때그때 재료의 조건에 따라 콩비지전, 감자전, 부추전 등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집 동그랑땡이 또한 일미라고 하는데 이날은 아쉽게도 맛보지 못했다.

돌솥 잡곡밥 오물오물 씹으면 곡물향내

막 익으려는 열무김치가 입 안에서 산뜻하게 씹히고 뽕잎장아찌와 곰취장아찌의 향미는 깊고 그윽하다.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잡채 접시의 기름지고 풍성한 맛과 양은 그야말로 구복(口腹)에 복을 가한다. 육류로는 유일하게 돼지제육볶음이 나오는데 상추쌈은 이것을 싸 먹어도 좋다는 뜻일 것이다. 이어서 뚝배기에 담긴 푸짐한 계란찜과 바글바글 끓는 된장찌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 위로 올라온다. 이 된장찌개 대신 비지찌개가 나오는 날도 있다.

뜸이 잘 든, 돌솥 속의 차조가 섞인 잡곡밥을 퍼 그릇에 옮기고 물을 부어 다시 뚜껑을 덮어 놓고는 이내 조기조림 간장을 떠서 밥그릇 한쪽을 비빈다. 입안 가득히 퍼지는 짭조름한 맛과 함께 잔잔하게 풍기는 조기 비린내, 그리고 거기 순박하게 어우러진 양념 맛이라니!

요즘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나,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나이 이상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맛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다만 이렇게 간장에 밥을 비비려면 그 밥이 말 그대로 백 퍼센트 흰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제 맛이 난다. 이것은 한국인이 가진 혀의 예민함이지 결코 잘못된 습관은 아닐 것이다.

간장으로만 다 비벼 먹을 수는 없어 된장찌개도 떠 보고, 맨밥 숟가락 위에 뽕잎장아찌를 얹어 입에 넣어 보기도 한다. 이내 밥그릇이 빈다. 돌솥을 당겨 뚜껑을 열고 잘 불은 누름밥을 뜬다. 누름밥은 당귀장아찌나 시래기무침과 먹는 것이 요령. 그래야 입안이 상쾌하고 개운하다. 아쉬운 것은 양념을 잘한 젓갈류가 한 가지쯤 있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누름밥은 새우젓이나 조개젓과도 썩 조화로운데…….

이렇게 모든 찬을 하나하나 상미(嘗味)해 보면서도 솔직히 상추에만은 손을 대지 않았다. 물수건 하나로는 손의 위생에 자신 없었던 데다가 점심에 퍼질러 앉아 쌈을 싸 꾸역꾸역 입에 넣기가 좀 그랬기 때문이다.

장사가 번창해서 건너편 빈 가게를 수리해 조만간 확장하리라 한다. 그리 되면 좀 더 안락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음식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집으로서는 저녁에 몰리는 단체 손님 응접에도 훨씬 용이할 것이다.

전동집에는 방금 먹은 이 집의 대표 음식 격인 백반 메뉴 외에도 모친 시절부터 평이 나 있는 별도 갈치조림이나 병어조림이 있고, 후에 이 사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퓨전 요리로 '묵은지닭볶음탕' '주물럭쌈' 같은 것이 있다. 주물럭쌈은 큰 생물 오징어 몸통에 보쌈처럼 새우 등 여러 가지 해물류와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요리라는데 이것 역시 맛을 보지는 못했다.

술과 식사겸한 저녁용 다섯 가지 요리 인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단체 손님을 위해 이 사장이 개발한 메뉴다. 술과 식사를 겸한 저녁용 다섯 가지 코스 요리로 탕 종류,

조림류, 튀김류, 그리고 일식이라고 할 생선회, 중국요리로는 고추잡채와 유산슬이 포함된, 남녀노소 각각 다른 입맛과 기호에 맞도록 한 '통섭의 요리'다. 단체 회식이라면 정해진 듯 고기집이나 회집, 중국집으로 향하는 것에 착안해 이를 조합한 메뉴를 개발한 것이다.

"전통 음식을 보존하면서, 한 편 새로운 요리도 창안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 도전이 이 기계공학과 출신 음식점 사장 이광호씨의, 삶의 의미 전부라는 듯이.

아무튼 오늘 맛본 이 호사스런 백반의 정가는 8천 원이다. 비슷한 메뉴를 내는 식당이 인천 땅에 적지 않겠으나, 전동집의 음식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옛 맛의 명맥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고마워서 더 흡족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문의 : 819-3076

목숨과 맞바꾼

겨울 땔감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1936년 만석동에 설립된 조선목재공업은 일제강점기 항공자재(라왕 합판)를 제조했던 군수공장이었다. 해방 후 대성목재(大成木材)로 이름을 바꿔 건축 목재 등을 생산했다. 6,70년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인천에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서 '대성목재 밖에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만큼 규모가 큰 회사였다.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일대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다녔다.

이 회사는 앞바다에 저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에 지름 1.5~2m, 길이 15~20m 가량의 거대한 수입 원목들을 수천 개 씩 띄워 놓았다(사진1). 이 저목장의 원목은 벌이가 없던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주민들은 끝을 납작하게 만든 '빠루'를 이용해 원목의 껍질을 떼어내 햇빛에 말린 뒤 일반 가정집에 팔거나 자기 집 땔감으로 사용했다. 좁은 마당에는 물론 골목마다 원목 껍질을 쌓아 놓아 비좁은 골목이 더 비좁았다. 간혹 도난 사고도 발생해 이웃간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 나무껍질을 태우면 군불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연료로는 최고였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어떤 이는 멀리 배를 타고 나가 원목을 실은 배에 올라가 나무껍질을 떼어내기도 했다. 회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공정상 원목 껍질은 베껴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

대성목재의 저목장은 이처럼 주민들이 입에 풀칠하는데 큰 보탬을 주는 장소였지만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공간이기도 했다. 여름철 아이들은 저목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띄워 놓은 통나무 위에서 뛰어 놀았다. 순간, 미끄러져 통나무 사이로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원목 위에서 빠지면 수압 때문에 물 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고 나오려고 발버둥쳐도 통나무에 머리가 막혀 쉽게 나오질 못해 목숨을 잃는다. 해마다 인근 동네에서는 1, 2명의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선생님들은 반 학생들에게 저목장에서 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곤 했다.

지금은 '멸공(滅共)'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박멸은 바퀴벌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1952년 6월 25일 한반도에 포성이 울린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은 일진일퇴의 교착 상태에 빠지고 간간이 휴전 협정의 소리

1 공중에서 촬영한 60년대 대성목재. 저목장에 원목들이 떠있다.
2 6·25전쟁 발발 2주년 멸공통일 인천시민 궐기대회 대회장 입구(1952년)
3 1970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백옥자 선수가 인천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1970년)
4 궐기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군악대를 앞세운 행렬(1952년)

도 들린다. 국민들은 전쟁의 도가니로 밀어 넣은 북괴와 소련에 대해 적개심이 높았다. 게다가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많았던 인천은 그 감정이 더 했다. 그래서 휴전이 아니라 공산군을 박멸해 한반도가 통일되길 간절히 소망했다.

그들은 공설운동장에 모여 멸공통일 인천시민 궐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장 정문에는 '6·25를 잊지 말자',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자', '강철같이 단결하자' 등 결의를 다지는 구호들이 내걸렸다(사진3). 시가행진을 독려하기 위해 군악대도 동원되었다. 시청을 떠나 운동장으로 향하는 행렬 앞에 군악대가 맨 앞에 섰다(사진4). 지금은 인천아트플랫폼으로 바뀐 창고들 앞에서 까까머리와 단발머리를 한 동네 아이들이 행렬을 뒤쫓고 있다.

투포환 선수 백옥자는 1951년 3월 5일 부평구 십정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눕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콩나물 장사로 끼니를 이어 가야하는 가난한 환경이었다. 그는 주안초교와 박문여중·고교를 나온 인천의 딸이다. 처음엔 농구와 배구를 했고 68년부터 포환을 던지기 시작해 그해 한국신기록(13m75)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던질 적마다 기록을 경신해서 맞설 적수가 없었다. 1970년 제6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등 아시아에는 백옥자를 넘볼 선수가 없었다. 이때 언론은 그에게 '아시아의 마녀'라는 별명이 붙여줬다.

사진 2는 1970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금의환향해 인천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올림픽 금정도는 돼야 박수를 보낸다. 3,40년 전만해도 카퍼레이드가 종종 있었다. 그 행렬을 따라 가며 괜히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러고 보니 카퍼레이드 본 지 참 오래됐다.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늠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땀 흘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베르디를 추억하며 Ⅰ〉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탄생 200주기를 맞은 대음악가 베르디의 유산을 노래하며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베르디의 오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퀴엠'을 연주한다.
베르디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레퀴엠'은 강렬한 어조와 풍부한 노래로 채워진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는 소프라노인 오미선, 알토 양송미, 테너 나승서, 베이스 최웅조 등 4인의 성악가와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과 의정부시립합창단이 출연해 웅장한 목소리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일시 : 11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커피콘서트Ⅷ 〈박완서의 책 속 실화 '그리움을 위하여'〉

한국문학의 대표 여성 작가(고) 박완서의 작품 〈그리움을 위하여〉는 배우들의 연기로 감상하는 낭독극이다. 유복한 마나님과 그녀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가난한 사촌동생이 칠십 먹은 할아버지 어부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스크린 속 사진, 효과음과 함께 두 사람의 수다로 풀어냈다. 스산해지는 늦가을, 잔잔한 웃음과 함께 반전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 11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모닝콘서트Ⅳ 〈메이트리의 싱그러운 아카펠라의 향연〉

〈모닝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는 고급스러운 아카펠라를 선사하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MayTree)다. '5월의 나무'라는 뜻처럼 항상 푸르고 싱그러운 마음으로 음악을 전하는 메이트리가 조용하거나 편안하기만 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아카펠라의 한계를 넘어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연주를 선사한다. 세계 아카펠라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그들이 전하는 감동의 목소리가 즐거운 시간을 약속한다.

일시 : 11월 6일(수) 오전 11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밴드데이Ⅴ 〈델리스파이스〉

11월 〈밴드 데이〉는 1990년대 중반, 척박했던 한국 대중음악계에 모던 록이라는 씨앗을 뿌린 델리스파이스가 출연한다. 이들의 히트곡인 '챠우챠우', '항상 엔진을 켜둘게', '고백' 등은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좋은 음악'으로 남아 있다.
오랫동안 다져온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무대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델리스파이스를 통해 서정성 짙은 멜로디와 청량한 사운드로 한국 모던록 신을 이끌어 온 현재진행형 밴드의 과거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일시 : 11월 14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Exhibition 이달의 展

~11월 3일	**제32회 인천광역시 초등교원미술작품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 **~11월 17일 과자&트릭아트 체험전시**('두근두근 챔피언 미술관' / 서구문화회관 아트갤러리)
~12월 1일	**2013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구락부〉展**(인천아트플랫폼, 중 · 남 · 동구 원도심 일원)
11월 1일~11월 7일	**2013 인천미술대전 및 초대작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제고사진동호회 제4회 사진작품전시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1월 1일~11월 13일	**환경사진 공모 작품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 **이철희-자연이야기(서양화), 이창구-풍월(風月)을 읊다(한국화)**(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1월 5일~11월 12일	**제4회 1318 Artcontest 중 · 고 미술동아리 초대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1월 8일~11월 14일	**2013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2013 인천건축문화제)**(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15일~11월 21일	**GCF유치기념 녹색성장국제아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바람이 분다**(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15일~11월 21일	**제4회 대한민국 실버 미술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1월 15일~11월 27일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졸업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다솜)
11월 19일~11월 29일	**인천여성서양화회 31주년-renew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1월 22일~11월 28일	**2013 인천세계미술초청국제교류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박태만 서예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 22일~11월 28일	**제32회인천광역시미술초대작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1월 29일~12월 5일	**인천예술고 테마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다솜)

11 CALENDAR PERFORMANCE

11.22 연희집단 The 광대

11.23 타악 퍼포먼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디아스포라 영화제** Diaspora Film Festival 영화공간 주안 오후 1시~ 무료 ☎032-435-7172	**2** **뮤지컬 〈헤드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디스테이지 010-4439-8337 **연극 '아버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3시, 7시 / 1만원, 학생 무료 ☎아리인터웍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032-760-3457 **디아스포라 영화제** Diaspora Film Festival 영화공간 주안 / 오후 1시~ / 무료 ☎032-435-7172
3 **뮤지컬 〈헤드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디스테이지 010-4439-8337	**4** 	**5** **감동의 선율로 세상의 빛을 만드는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5인의빅밴드앙상블 010-8783-0002	**6** **모닝콘서트Ⅳ** **〈메이트리의 싱그러운 아카펠라의 향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원 ☎인천&아츠 1588-2341 **마임극 '개같이 뛰어라'**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천원 ☎032-505-5995	**7** **인천시립교향악단 〈베르디를 추억하며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마임극 '개같이 뛰어라'**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리투아니아 전통민속예술단 초청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 무료 ☎리투아니아 전통민속예술단 032-760-3457 **타악 퍼포먼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1만5천원 ☎032-580-1155	**8** **로맨틱 팝 피아니스트 〈윤한 힐링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원 ☎032-500-2000 **마임극 '개같이 뛰어라'**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타악 퍼포먼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1만5천원 ☎032-580-1155 **타악 퍼포먼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후 2시 1만5천원 ☎032-580-1155	**9** **이덕인 국악뮤전뮤지컬 〈혹부리 영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3만원 ☎예인프로덕션 02-2681-2075 **어린이명작극장 〈고추장 떡볶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현대무용 '바다는 없다'**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7시 / 2만원 ☎댄스 컴퍼니 명 032-760-1005 **인천아리랑 4**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4시 / 무료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032-760-3457
10 **이덕인 국악뮤전뮤지컬 〈혹부리 영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오후 2시 / 전석 3만원 ☎예인프로덕션 02-2681-2075 **어린이명작극장 〈고추장 떡볶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현대무용 '바다는 없다'**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5시 / 2만원 ☎댄스 컴퍼니 명 032-760-1005 **With Us 〈동행〉 피아니스트 정재원** 송도 트라이볼 콘서트홀 오후 5시 무료 ☎1566-6551	**11**	**12** **뮤지컬 〈꼴꼴꼴 대소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전석 1만5천원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 **제9회 인천여선교 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인천여선교합창단 032-423-6006	**13** **뮤지컬 〈꼴꼴꼴 대소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40분 전석 1만5천원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 **커피콘서트Ⅸ 〈작가 박완서, 그녀의 책 속 실화 - 그리움을 위하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아츠 1588-2341 **다락방프로젝트 "독립예술만세!" (1인극 Festival)** '제랄다와 거인' / '행복한 네모이야기'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032-507-5996	**14** **TBN 인천교통방송개국 12주년기념 축하공개방송**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TBN인천교통방송 032-453-1214 **밴드 데이Ⅴ 〈델리스파이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2만원 ☎인천&아츠 1588-2341 **청소년 공연 '카타시소와 비보이'**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 무료 ☎032-899-1516	**15** **황해도 전통춤과 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암스은전통예술보존회 032-875-9953 **연극 〈휴먼코메디〉**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2만5천원 ☎032-500-2000 **인천교통방송과 함께하는 트라이볼 〈청춘콘서트〉** 송도 트라이볼 콘서트홀 오후 7시 무료 ☎032-760-1014	**16** **Michael Choir 제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Michael Choir 010-9013-2051 **연극 〈휴먼코메디〉**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7시 / 2만5천원 ☎032-500-2000 **해설이 있는 뮤지컬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4시 / 6천원, 학생무료 ☎예건이트 032-760-3457 **제4회 이끔이축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4시(체험은 오후 2시부터) / 무료 ☎032-453-5710
17 **뮤지컬콘서트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일반 3만원, 조합원 1만5천원 ☎푸른두레생협 032-815-2278 **With Us 〈동행〉** **바이올리니스트 태선이** 송도 트라이볼 콘서트홀 오후 5시 무료 ☎1566-6551	**18** **진정한 친구를 찾는 청소년 TIE극 '거울보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2013.11.18(월) ~12.01(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1만원, 단체 5천원 ☎032-032-453-5710	**19** **인천청소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초대 ☎인천청소년필하모닉 032-821-9901 **인천시립무용단 제22회 I-dance 〈인천을 빛낸 별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5천원 ☎인천시립무용단 1588-2341	**20** **제30회 새엄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 / 초대 ☎새엄문화재단 032-885-3611 **다락방프로젝트 "독립예술만세!" (1인극 Festival)** '벌레가 된 소년' / '아코'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032-507-5996 **가족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문화회관 회원 50% ☎032-580-1155	**21** **인천시립합창단 〈2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 2천원 ☎인천시립합창단 032-420-2736 **가족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문화회관 회원 50% ☎032-580-1155 **가족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오후 2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문화회관 회원 50% ☎032-580-1155	**22**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시아장애석 2만2천원 ☎032-500-2000 **연희집단 The 광대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23**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7시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시아장애석 2만2천원 ☎032-500-2000 **남독, 연극, 뮤지컬 '짜지앙미엔'**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032-760-1005 **가족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문화회관 회원 50% ☎032-580-1155
24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남독, 연극, 뮤지컬 '짜지앙미엔'**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2시 / 무료 ☎032-760-1005 **With Us 〈동행〉** **바리톤 안갑성** 송도 트라이볼 콘서트홀 오후 5시 무료 ☎1566-6551	**25** 11.23 플리맹크 코리아	**26** **인천남성합창단 제46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인천남성합창단 032-277-1434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27** **남경주 ·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웨이브미디어 02-716-3316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다락방프로젝트 "독립예술만세!"**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032-507-5996 **제14회 초 · 중 · 고 전통음악경연대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오전 9시 무료 ☎고등학교음악교과연구회 032-718-4379	**28**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어린이 캐스**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 무료 ☎032-899-1516	**29**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플리맹크 코리아**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천원 ☎032-505-5995 **진정한 친구를 찾는 청소년 TIE극 '거울보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1만원, 단체 5천원 ☎032-032-453-5710	**30** **EBS 꼬마버스 〈타요〉 "슈퍼버스의 탄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창라이프 1566-6551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 (리아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30분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아이리쉬 트웰브테너 내한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4시 / 1만원, 학생무료 ☎아이리쉬 트웰브테너/ 뮤직쥬 032-760-3457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국제기구 도시로 우뚝!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가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김용 WB 총재와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WB 한국사무소 본부를, 서울에는 연락사무소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의 협정문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 이어 또 다른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다. WB 한국사무소는 지식공유, 개발금융, 투자보증 등 다양한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특히 WB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기능을 한국에서 발휘, 개발협력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민간분야를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원조기구인 IFC는 한국 민간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금융시장 프로젝트에 참가할 때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위험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MIGA의 보증을 받는데, 앞으로는 굳이 미국에 갈 필요 없이 한국사무소에서 보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국사무소의 입주 시점은 설립 협정문이 국회 승인을 마친 뒤인 12월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14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창립총회를 열어 A-WEB 헌장을 채택하고 송도의 사무처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시는 세계은행에 이어 A-WEB까지 국제기구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국제기구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A-WEB은 선거 관련 정보·지식·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120개국이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다.

A-WEB 사무처는 직원 약 50명 규모로 이달 말 송도 G타워 24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A-WEB은 향후 300명 이상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A-WEB의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와 사무처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중앙선관위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에 유치된 또 다른 국제기구인 유엔 GCF의 규모와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A-WEB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생산·고용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116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12월 4일 출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이 오는 12월 4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차 GCF 이사회에서 이같은 사무국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GCF 이사국들은 내년 5월에 예정된 2014년 2차 이사회까지 재원 운영을 위한 필수 사항을 결정하고, 초기 재원조성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사회 기간 기재부는 인천시, GCF 사무국과 GCF 공관, 회의시설 제공 등을 위한 행정 협정을 체결했다.

기재부는 세계은행과도 올해 GCF 운영비 제공을 위한 공여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GCF 사무국 운영비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세계은행은 GCF 운영기금의 임시 수탁자로서 자금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문의 : 시 GCF전략과 ☎440-8592

건축정책 중장기 비전 · 전략 나왔다

우리시는 건축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은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광역차원의 발전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인천 ▲지속가능한 건축을 선도하는 인천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인천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과 18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추진전략은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 ▲품격있는 도시 디자인 구현 ▲지역별 정체성 확립 ▲녹색건축 기반조성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지역 건설산업 자생력 확보 ▲역사 · 문화 자원보전 및 활용 ▲건축문화 기반조성 ▲건축교육 저변확대 등이다.

시는 건축문화자산 DB구축, 기초건축교육, 건축문화재단설립, 건축문화제 활성화 등 다양한 건축문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으로 인천시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이 향상돼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440-4721

프랑스 베올리아워터 아 · 태교육훈련센터 개소

수(水) 처리 분야 세계 1위인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의 아시아 · 태평양 교육훈련센터가 지난달 25일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송도 4공구 3천300㎡ 부지에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1층에는 강당, 홍보관, 중앙실험실, 시험공장, 물 교육장이 2층에는 교육세미나실과 라운지 등이 위치해 있다.

센터는 베올리아워터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직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과 연구소 등으로 활용된다.

경제청은 연간 약 3천명의 센터 연수생이 송도를 방문해 숙박 · 요식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베올리아워터는 상 · 하수 처리, 해수 담수화 등 물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전세계 69개국에 진출해 1억7천만명을 대상으로 상 ·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82

전국 최초 심뇌혈관질환 상담 콜센터 운영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심뇌혈관질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상담 콜센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뇌졸중의 날'에 맞춰 오픈한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용 상담전화(1566-0181)를 통해 운영된다. 교육상담 서비스는 인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소속의 전문 간호사 7명과 질환별 전문 교수 10명이 맡는다.

올해 5월 우리시와 인하대간 협약을 통해 출범한 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환자 교육자료의 자체 개발, 일선 보건소에 대한 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구축을 완료해 일반 시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관련 자료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정보센터 홈페이지까지 구축하면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화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심뇌혈관질환 교육상담체계를 가동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22

송도국제도시~신촌 광역버스 개통

송도국제도시~서울 신촌간 광역급행버스(M6274)가 지난달 15일 개통했다. 이날 개통된 광역급행버스는 시내직행 좌석형으로 모두 10대를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신촌까지 44.4㎞로 모두 12개의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1일 56회 운행할 광역버스의 배차는 15분~20분 간격이며 약 90분 정도 소요된다. 운행요금은 2천200원(카드 기준)으로 기본 30㎞ 초과시 5㎞당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 비례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8월 10일 도입한 초특급 운송수단 M버스(Metropolitan Bus)는 총 17개 노선이다. 인천에는 M6405(송도 웰카운티~강남역) 20대, M6410(미추홀외고~강남역) 15대, M6118(청라엑슬루타워~서울역) 10대 등 3개 노선 45대가 이미 운행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로 연세대 서울과 송도국제캠퍼스간 교류 협력과 학생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향후 송도~신촌~서울역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선 연장, 차량 증차 등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62

2014 인천장애인AG 공식 홈페이지 개통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1년을 앞둔 지난달 18일 공식 홈페이지(www.incheon2014apg.org)를 개통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했다. 장애인 대회 경기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국·영문 모바일 홈페이지도 서비스되며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도 연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458-5372

"차 필요할 때 빌려 타세요"

우리시가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달 24일 (주)케이티렌탈 컨소시엄, 에이제이렌터카 등과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인천시민은 케이티렌탈 · 에이제이렌터카 등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대전화 등으로 예약하면 지정된 주차장에 배차돼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경차 기준으로 30분당 표준요금은 3천300원(유류비 별도, ㎞당 190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카셰어링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에게는 연회비 면제 및 3개월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0시간 이용권 등을 준다 카셰어링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72곳과 부설주차장 10곳,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18곳 등 총 100곳이다. 옹진 ·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에는 5~25곳의 카셰어링 주차장이 설치 운영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57

미국 조지메이슨대 개교 위한 협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0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내년 3월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를 위해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협약을 맺었다.
송도캠퍼스 총 정원은 760명으로 경영학 320명, 경제학 320명, 국제학 120명이다. 조지메이슨대는 송도캠퍼스 개교 첫해 경영학과 경제학 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2015년 3월에는 국제학 학부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송도캠퍼스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국 본교 학위가 수여된다. 조지메이슨대는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송도캠퍼스 설립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개교 준비 작업 중이다.
한편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 1957년 개교한 조지메이슨대는 미국 내에서 법학 분야 대학랭킹 40위, 공공행정 분야 랭킹 24위에 올라 있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33

인천 소래습지 · 시흥 갯골습지 공동 관리 협약

우리시는 지난달 14일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시흥갯골습지 공동 보호 · 관리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관계 공무원, 의제21, 환경단체가 모여 연구조사와 환경 감시 등을 하고 소래습지 · 시흥갯골습지 공동 운영관리 세미나를 열어 비전을 수립 ·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물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비 확보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 유일 최대 습지인 소래습지와 시흥갯골 습지를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래습지와 시흥갯골 습지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수도권 습지로 보존가치가 있어 공동 관리·운영하고자 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해당 습지들이 관광지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1-17번지 1천561㎡ 규모의 공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갯골 생태공원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32번지 1천506㎡ 규모의 공원으로 2012년 2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52

인천N방송 시민기자단 출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SNS 시민미디어방송 '인천N방송' 시민기자단이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시민기자단은 인천의 지역 뉴스, 문화예술, 사회 · 경제, 관광 ·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소식을 취재해 전한다. 이웃의 따뜻한 생활 이야기와 알아두면 유익한 시정 홍보, 지역별 관광투어 및 역사기행도 소개한다. 또 시민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모니터링 외에도 재래시장과 지역 내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판매를 연계해 주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한편 인천N방송은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방송통신융합사업으로 선정돼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방송국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3266

송도국제도시에 1천300병상 규모 국제병원 설립

송도국제도시에 1천300병상 규모의 비영리국제병원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우리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시청에서 메디컬 콤플렉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병원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총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송도 7공구에 오는 2018년까지 진료단지, 연구교육단지, 복합지원단지 등이 들어설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를 설립한다.
메디컬 콤플렉스의 전체 면적 7만7천550㎡(약 2만3천500평) 중 진료단지(3만3천㎡)는 최대 1천3백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설립된다. 이 규모는 현재 인하대병원 900병상보다 400병상이 많은 것이다. 또 2만3천100㎡ 규모의 연구교육단지는 교육을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 산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고, 2만1천450㎡ 규모의 복합지원단지는 최고급 메디컬 숙박시설, 시니어타운 등이 들어선다.
한편 한진 측은 대한항공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유수 외국병원과의 연계 · 협력을 통해 외국인 진료와 질환별 전문 특성화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93

스마트시티 개발 시스코 R&D센터 개소

미국 다국적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시스코의 R&D센터가 송도국제도시에 오픈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0일 포스코 E&C타워에서 시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계 도시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인 GCoE(Global Center of Excellence) 개소식을 열었다.
시스코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구현 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국내 관련 업체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국내 업체 공동 연구 · 개발로 관련 기술이 국내로 이전되고 원도심 개발 등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72

아파트 공동시설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우리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행복 백만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남동구 '서창다소니 어린이집'이 지난달 8일 개원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서창다소니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120곳의 국 · 공립 어린이집(정원 7천971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3곳이 추가 개원하면 모두 133곳의 국 ·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다.
남동구 서창남로에 들어선 서창다소니 어린이집은 국비 1억6천700만원, 시비 5천200만원, 구비 5천200만원 등 총 2억7천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서창 LH 11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에 설치됐다. 단지 아파트대표자회의로부터 어린이집 설치공간(연면적 279㎡, 지상1층)을 12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았다. 시민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맡고 보육교직원 8명이 60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440-2899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무형 유산을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배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존 · 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백9억4천만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사를 진행(공정률 68.5%)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개의 기능동과 2개의 예능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관계자들에게 전수교육관 건립이 완료되면, 전통문화의 보전 · 계승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영 의원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특위' 위원장에

인천광역시의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안 의결에 이어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정수영(건설교통위, 남구 제4선거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홍성욱(기획행정위, 계양구 제2선거구), 신동수(문화복지위, 남동구 제3선거구) 의원을 각각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천시의 정책적 · 재정적 지원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교육 · 복지 · 주민 공동체 등 각종 유관한 영역까지 포괄하여 입체적인 접근을 도모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수영 의원은 "공동주택이 그동안 사유지로 분류되어 정책적,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인 만큼, 일반주택과 형평성을 맞춰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래습지생태공원 발전방안…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에서 김영분 제1부의장의 주재로 인천시 및 환경 단체 관계자, 남동구청 관계 공무원, 소래어촌계, 지역주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발전방안 및 주변 갯골 습지 관리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를 인근 시흥습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기존 소래포구 활성화 및 지역 어민 어업 활동 지원과 연계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방안, 장수천과 습지 주변 지역 생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기타 해양생태공원으로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동인천고 학생대상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일 동인천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동인천고등학교 2학년 문과반 학생 140여 명이 의회소개, 홍보동영상 시청, 지방의정 특강, 기념사진 촬영 등 총 2시간 과정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개최된 시의회 직업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학생들은 의회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으로서의 시의원의 의미, 의원이 되는 방법 및 권한, 시의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 홍보동영상 시청을 통해 시의회의 조직과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

인천도시가스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8일 강화군을 비롯해 7개구 약 71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를 방문하여 동절기 에너지 대책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스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가스공급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직원을 격려하고자 이뤄졌다. 현장방문에는 이성만 의장, 구재용 의회운영위원장,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과 시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이 참여하였다.
방문단은 상황실에서 도시가스공급 실태 및 상황 발생별 긴급대응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절기 사고예방 대책 메뉴얼 등을 살폈다.

인천디자인고등학교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인천디자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실습여건 등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성만 의장은 교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바른 품성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도록 바른 품성의 교육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체육대회 관계자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7일간 치러진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 · 폐회식 행사장소인 문학경기장을 방문하여, 성화봉송과 개 · 폐회식 행사, 경기장 준비 현황 등 전반적인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인천에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체전을 위해, 그동안 인천시는 종합 2위를 목표로 우수 선수 영입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은 선수 1천314명과 임원 185명 등 총 1천499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2014 인천AG, 장애인AG 공모사업 시상

2014 인천아시안게임 · 장애인아시안게임범시민지원협의회는 지난달 10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추진하였다. 그리고 총 77건의 공모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스포츠 · 홍보, 지역경제 · 자원봉사 · 교통. 환경 등' 5개분야 수상자(우수2, 장려3)에게 시상했다.
범시민지원협의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60여 명의 인천지역 각계 각층의 시민 · 사회단체 및 주요 인사를 총망라하여 지난 5월에 구성 출범했다. 12개 분과위원회에서는 범시민 손님맞이 및 대회참여 운동, 선진 의식개혁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참여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립 특수학교 예림 · 성동학교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0일(목) 사립 특수학교인 예림학교와 성동학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인천지역 사립특수학교 총 4개교 중 예림학교와 성동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학교의 운영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학교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 치료교육 등 수업을 참관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직접 보조 교사로서의 역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림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배드민턴부 동아리 활동 등 13개 수업을 직접 교육위원이 참관하고 수업을 지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동학교는 유치 미술치료와 초등 놀이치료를 함께 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수업에 어려움이 없는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고등학교 신설추진위' 현판식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 좋은고등학교 신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학)'는 지난달 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강호 시의원, 이수영 교육위원, 이청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회장, 윤향석 구월롯데캐슬골드 2단지 회장, 한상진 구월힐스테이트 3단지 회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2015년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 단지로 이전하는 만월초등학교 기존부지에 2017년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역 내에 경쟁력 있고,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라 지역의 각 인사와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개최되었다.

Info+box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11월 도서관 문화행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고윤 작가전	10월 30일(수) ~11월17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청소년 이상	440-6643
유럽예술에 취하다	11월 4일(월)~11일(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62
독서아카데미 「삼국지 영웅들의 리더십」	11월 6일(수)~12월 4일(수)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62
시민건강강좌 「대장암」	11월 9일(토) 10:30~11:30	세미나실1	전체	440-6663
가을음악회	11월 16일(토) 14:00~15:3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43
다문화 체험교실 「우즈베키스탄」	11월 17일(일) 14:00~15:30	세미나실1	초등 3, 6학년 학부모	440-6644
그룹1279 단체전	11월 27일(수) ~12월 15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43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 · 일 14:00	강당(지하 1층) ※홈페이지 참조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 · 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 · 반납	예술회관역(지하 2층) 미추홀도서관(1층 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를 참고하세요.

호야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민화 이야기

인천시립송암미술관은 2013년 두 번째 기획특별전으로 '호야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민화 이야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주제로 표현된 민화에 담긴 옛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소망과 상상을 알아보는 전시다.

전시기간 : 10월 15일~2014년 3월 2일
장소 : 인천시립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440-6770

한글날 기념 '아시아 문자전' 개최

(재)인천국제교류재단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아시아 문자전'을 2014년 2월 24일까지 아시아문화관에서 진행한다.

전시특징 : 다양한 아시아 언어의 특징을 소개하고, 각 나라의 문자가 새겨진 물품을 전시. 특히 이번 전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본국의 문자로 시, 명언 등을 써 전시하는 '참여형 전시'라는 점에 큰 의의
부대행사 : 단체 관람(10명 이상)의 경우 연령층별로 아시아 문자 책갈피 만들기, 문자 목걸이 만들기 등의 부대프로그램 마련
운영시간: 10:00~19:00(일요일, 공휴일 휴관)
문의 : 451-1820

율목도서관 11월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가을이 깊어지는 11월을 맞아 가족과 아이들이 즐길만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

기간 : 11월 1일~30일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0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행사] 율목도서관 제2회 독서골든벨 대회 [초등 3~4학년대상]	11월 17일 14:00~16:00	본관 2층 소극장	어린이들의 폭넓은 독서경험 및 도서관이용 생활화 유도를 위해 실력을 겨루며 최후 10인에겐 관장상 및 푸짐한 상품이 수여
[글쓰기 강좌] 문학, 나를 돌아보는 창	11월 1일~15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본관 2층 소극장	수필가 이성재 선생님과 함께 근대문학작품을 읽고 관련 주제를 정하여 글쓰기
[영화상영 I] 율목미디어데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본관 2층 소극장	독립예술영화 상영
[영화상영 II] 율목시네마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본관 2층 소극장	주말 가족을 위한 영화상영
[북스타트] 생각이 쑥쑥 자라는 독서교실	매주 수 오후 2시/ 오후 3시	어린이실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와 함께 북스타트 추천도서 읽기 및 독후활동 자녀를 둔 엄마끼리 모임형성
[어린이상시프로그램] 『이야기 보따리 술술』	매주 화, 목, 토 오후 4시	어린이실	사서, 자원활동가가 그림책 읽어주기 진행
[어린이상시프로그램] 독서왕! 율목 밤톨이	상시	어린이실	매월 최고점자 각 1인 선정 후 어린이 사서체험 및 선물(도서) 증정
[어린이상시프로그램] 독서통장 발급	상시	어린이실	
[견학프로그램] 올레졸레 도서관 여행기	매주 수, 목	어린이실	도서관 소개, 이용교육, 관련 영상 감상, 약속카드 만들기, 자율독서 등

Info+box

겨울문화학교 , 연수구 깊이알기 대회

연수문화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문화학교와 연수구 깊이알기 경진대회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겨울문화학교

교육기간 : 12월 2일(월)~2월 26일(수) 3개월
접수기간
• 기존회원 동일강좌: 11월 1일(금)~7일(목)
• 기존회원 타강좌 및 신규회원: 11월 8일(금)~선착순 마감
장소: 연수문화원(연수구청 7층)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문의 : 821-6229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아 어린이	싸이언스요리쿡!, 야미!요리스쿨, 창의미술ART, 해금, 가야금, 기타교실, 어린이합창
	논리적문제 해결방법, 레고닥타, 창의과학교실, 전통관악기, 우쿨렐레, 플룻, 연극놀이
성인	힐링다도, 싹스돌만들기, 기타교실, 대금 · 소금, 오카리나, 연필인물화, 수채화, 서예
	천연아로마테라피, 우리술 전통주 만들기, 사진공작소, 도자기공예, POP, 하모니카

제10회 연수구 깊이알기 경진대회

대상 : 연수구 관내 연수구민 (초,중,고,성인 포함)
목적 : 우리고장의 역사와 향토관련 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애향심 함양
작품제출형태 : 연수구의 역사, 특성이 표현된 글(시, 산문)과 사진작품(인쇄물, JPG파일)
접수방법 : 1. 우편, 방문 접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 연수문화원) 2. 이메일 접수 (yonsu-cc@hanmail.net)
작품접수 : 10월 28일(월)~11월 8일(금)
작품심사 : 11월 14일(목)~11월 15일(금)
시상식 : 12월 중 (시상자 개별통보)
문의 : 821-6229

이승주 사진전 'Restructure'

사진갤러리 배다리에서는 11월 전시로 이승주 사진전인 'Restructure'를 연다. 시민들의 관람을 기다린다.

내용 : 작품 중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다룬 '지구방위대', 재현되는 기억과 사실에 관한 'Hyper Memories', 각자의 중간 세계와 현실의 충돌을 다룬 'Common People' 중의 일부를 통해 현실의 개인적 대안 표현
일시 : 11월 1일~13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문의 : 010-5400-0897

초등학생 위한 겨울방학 특강

미추홀문화회관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학기를 맞아 부담 없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무료특별기획강좌' 및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을 마련했다.

강좌기간 : 12월 2일~2014년 2월 22일 (3개월)
접수기간 : 10월 28일~12월 7일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 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 : 765-0220, 0250, mchart.co.kr, twiter.com/mchart0250

'2014 미추홀터 기획전시' 공개모집

미추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에게 우수한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도 미추홀터 기획전시' 콘텐츠를 공개모집한다.

모집부문 : 회화, 조각, 사진, 공예 등 조형예술 분야
모집횟수 : 총 9회
전시기간 : 2014년 연중(*세부일정 공고문 참조)
전시지원 : 무료대관, 홍보물 제작 지원(예산 범위 내), 행정지원
접수기간 : 10월 21일(월)~11월 7일(목)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440-6643 또는 6668)
접수장소 : 미추홀도서관 2층 문헌정보부 사무실

2013년, OBS 연중캠페인
"사람冊上을 만듭니다"
채널안내 670-5500 , 뉴스제보 670-5555 OBS

멜로다큐 〈가족〉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분. 멜로다큐 〈가족〉은 2008년 2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우리 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소개한다. 묵인 우리의 이웃들이 그 안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와 극복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운다.

OBS채널 안내

Info+box

청소년 문화예술 감상학교 〈수다 떠는 우당탕 교실〉 모집

서구문화회관은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별 또는 세부 장르별 예술작품 감상 교육이 중심이 된 '수다 떠는 우당탕 교실'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구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모집대상
〈매주 토요일 09시~12시, 총 13차시 진행〉
3기 : 2013년 11월 23일(토)~12월 14일(토), 4차시 운영
고등생 대상, 50명 정원
문화감상 패밀리데이 프로그램 :12월 25일(수) 1~3기 참가자 및 가족 등 300명 대상
수강료 : 무료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내 용	비 고
3기	마루를 울리는 감동, 하우스 뮤직 이야기 11월 23일(토)~ 12월 14일(토)	• 클래식 음악회 '더블 베이스' 관람 • 작품소개 및 관람 포인트 설명, 감상문 작성 • 백스테이지 현장투어, 공연장 관련 진로탐험 등	고등생 대 상
문화감상 Family Day 12월 25일(수)		• 1~3기 참가자 및 가족 초청〈이루마 콘서트〉 관람 • 작품소개 및 관람 포인트 설명, 감상문 작성	

접수기간
3기 : 2013년 10월 28일(월)~11월 8일(금) 18:00까지
운영장소 : 회관 B03강의실 및 로비, 대공연장
교육강사 : 예술강사 김인경, 최길순, 이원선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문의 : 580-1155

동아시아우호박물관 순회기획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순회기획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립박물관과 일본 키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중국 대련시 여순박물관 간의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기간 : 10월 15일(화)~11월 10일(일)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전시내용 : 사진자료, 회화를 중심으로 '석탄과 철이 만든 공업도시' 기타큐슈시의 성립과정, 거리풍경과 일상생활을 소개
전시자료 : 사진, 조감도, 기록화 등 47점
문의 : 440-6732

인천도시인문아카데미 하반기 인문학 강좌

컴팩스마트시티는 인천 도시 인문아카데미 하반기 인문학 강좌를 연다. 또 11월을 맞아 건축영화제, 일요다양성 영화제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영화들도 상영한다.

인천도시인문아카데미 하반기 인문학 강좌

서양미술사

일시	강의주제	강의 세부내용
11월 5일(화) 19:00~21:00	현대미술의 탄생	6강. 현대미술의 문제의식과 다양한 실험들
11월 26일(화) 19:00~21:00	예술가란 무엇인가?	7강. 현대 예술가의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

나무,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일시	강의주제	강의 세부내용
11월 6일(수) 19:00~21:00	나무,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7강. 도시의 나무와 현대의 나무 보호 방식
11월 13일(수) 19:00~21:00		8강. 나무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

주역

일시	강의 세부내용
11월 8일(금) 19:00~21:00	4강. 주요 卦 강의 - 풍뢰익괘(風雷益卦) 중풍손괘(重風巽卦)
11월 15일(금) 19:00~21:00	5강. 주역에서 본 선·후천 괘(卦) 및 효(爻) 현대물리학과 주역

문의 : 850-6016, 이메일 cscity@naver.com

건축영화제
일시 : 11월 9일(토) 14:00~17:00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상영작 : 14:00 Talking Architecture, City:Hall
16:00 Five master Houses of the World - 안도다다오

일요 다양성 영화제
일시 : 매주 일요일 14:00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상영작 : 10일 / 링, 17일 / 그리고 싶은 것, 24일 / 종로의 기적

11월 26일(화) 경인방송 라디오책방 '고도원_위대한 시작'
12월 31일까지는 '인천 타임 슬립, 다른 시간 같은 장소 -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담다' 영상 및 사진 전시회가 진행된다.

Info+box

제2회 친환경자전거대축제

연수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원으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 문화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제2회 친환경자전거대축제'를 개최한다.

일시 : 11월 3일(일) 09:00
장소 :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뒤 야외광장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 1번출구)
참여인원 : 약 3천명(퍼레이드 포함)
문의 : 749-8552

'세계 책의 수도' 지정 기념 청소년 백일장 개최

우리시가 유네스코로부터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독서진흥 운동을 활발히 하고자 청소년 시 백일장을 개최한다. 초, 중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일시 : 11월 9일(토) 13:00~19:00
장소 : 인천대공원(야외극장)
내용
식전행사(13:00~17:00) : 청소년 시 백일장, 저자특강, 북페스티벌
본 행 사(17:00~17:30) : 선포식, 유공자 포상, 유치성과 인터뷰 등
축하공연(17:30~19:00) : 가수출연 축하무대

청소년 시 백일장 행사
참가대상 : 초, 중학생
시상부문 : 대상 2명(시장상), 최우수상 2명(교육감상)
참가신청 : 10월 28일(월)~11월 6일(수)
신청방법 : jklee1076@korea.kr, 팩스 440-8675
문의 : 440-4002

11월 인천유나이티드 FC 홈 경기일정

인천유나이티드 FC는 인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뜨거운 응원 속에 K리그 클래식 14팀 중 상위 7개팀이 대전을 펼치고 있다. 11월 인천유나이티드 FC의 홈 경기 일정을 소개한다.

경기일정
11월 10일(일) 16:00 〈인천 대 부산〉 - (K리그 클래식 A그룹)
장소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교통공사 발전위한 시민제안 공모

인천교통공사는 종합교통기관으로 더욱 도약하고자 공사의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주제 : 인천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대상
• 도시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제안
• 인천교통공사 사업분야의 수익증대 방안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
• 기타 인천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제안
접수기간 : 10월 21일(월)~11월 9일(토)
결과발표 : 11월 28일(목) 예정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응모자격 : 인천시민 및 인천교통공사 고객
접수방법
• 인터넷 : 이메일 접수(suggestion@ictr.or.kr)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기획홍보처 '시민제안 공모' 담당자 앞
• 방문 : 인천교통공사 본사 5층 기획홍보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A4용지 5매이내의 제안설명서
문의 : 451-2067, www.ictr.or.kr

NOC 어시스턴트(통역요원) 모집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NOC 어시스턴트 통역요원을 모집한다. 통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란다.

모집기간 : 11월 1일(금)~15일(금) 24:00 (서면제출은 18:00까지)
E-mail 접수 :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붙임1] 및 [붙임2]를 다운로드 작성하여 e-mail로 송부
서면 접수 : [붙임1] 및 [붙임2]를 작성하여 '아시안게임조직위(국제부)'로 우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모집인원 : 500명(영어400명이상, 일어·중국어·아랍어·러시아어 각 00명, 기타 아시아권언어가능자)
신청자격 : 영어 외 상기 모집언어 능통자(*국제회의 유경험자 우대)
문의 : 458-2453

제7회 인천광역시 영어축제

우리시는 다양한 영어문화 체험 및 영어사용 붐을 조성하기 위한 '제7회 인천광역시영어축제'를 개최한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시 : 11월 9일(토) 10:00~16:00
장소 : 인천시영어마을
행사내용 : 영어체험, 이벤트 등
문의 : 440-2193

Book

이달의 서평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앤서니 그랜트, 앨리슨 리 | 비즈니스북스 | 2013

'행복'이란 주제에 새로운 각도로 접근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뒤바꾸고, 호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 초대형 심리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을 강요했던 기존의 행복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과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데일 카네기 골든 메시지

박영찬 | 매경출판 | 2013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한 권으로 데일 카네기의 베스트셀러인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카네기 행복론〉의 3권을 읽을 수 있도록 각각의 핵심 포인트만 뽑아 구성한 책이다. 카네기의 모든 원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행복, 소통, 명언이라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함께 소개한다.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구본형 | 휴머니스트 | 2013

〈익숙한 것과의 결별〉의 저자인 (고)구본형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간지에 연재했던 '구본형의 편지'를 정리해 엮은 유고집이다. 하고픈 일을 못하는 P, 결혼을 앞둔 J, 좋은 사장이 되고픈 H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14통의 편지를 통해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과 신의 재능을 발휘해 프로로 나아가고 싶지만 두려워 망설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세상의 모든 아침

파스칼 키냐르 | 문학과지성사 | 2013

역사 속에 묻혀 있던 17세기의 생트 콜롱브를 끌어내 세속적인 영광을 거부한 한 음악가의 예술혼을 그려냈다.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굳이 음지를 택했던 생트 콜롱브. 주옥같은 음악들을 작곡했지만, 그것들을 출판하지 않고 은밀히 혼자서만 간직했던 그. 음악을 상실하면서 느끼는 공포, 왕실의 부름을 거부하는 음악가의 자존심과 긍지 등을 담아냈다.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오직 독서뿐	정민	김영사	허균에서 홍길주까지 옛사람 9인의 핵심 독서 전략
2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앤서니 그랜트, 앨리슨 리	비즈니스북스	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뒤바꾼 초대형 심리 프로젝트
3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조이스 마이어	두란노	언어 테러리스트에서 언어 축복자로!
4	데일 카네기 골든 메시지	박영찬	매경출판	소통과 긍정의 언어로 행복을 이끄는 100년의 가르침
5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	레이먼드 조	한국경제신문사	소통 부재의 시대, 진정한 행복의 새로운 가치!
6	동물의 숨겨진 과학	캐런 섀너, 재그밋 컨월	양문	노래하고 낄낄대는 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
7	(내 아이를 망치는)과잉육아	킴 존 페인	아침나무	엄마의 불안을 물건으로 대신하지 마라
8	셜록홈즈 추리파일	존 H. 왓슨	보누스	미해결 미스터리 사건 150
9	SPEED OPIC Native 따라잡기	Nathan Farren, Jooch Nam, PMG 영어연구소	박문각	네이티브 평가자를 감동시키는 리얼오픽
10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구본형	휴머니스트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싶은 그대에게
11	세상의 모든 아침	파스칼 키냐르	문학과지성사	진정한 예술가의 길과 사랑, 삶과 죽음!
12	낯선 그리움의 땅, 만주	안민영	서해문집	열정 가득 역사 교사의 만주 답사기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소설가 **양진채**

1966년 인천 출생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스카 라인」이 당선되어 등단. 현재 '문학비단길', '굴포문학' 동인이며 인천in 인터넷신문 〈여성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주요저서
소설집 「푸른 유리 심장」(2012)

Incheon Life Story

인천 사는 이야기

자유공원 아래 이야기

자유공원 아래. 작달만한 건물들이 옹기종기. 잘빠진 요즘의 건물들은 섹시하기는 하지만 정은 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자유공원 아래, 재잘재잘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예나 연수구 먼우금로

국화밭 농부와 아내

가을하늘 아래 아름다운 국화 밭에서, 농부는 부지런히 국화 밭을 갈고 아낙은 반갑게 나를 맞이합니다.
여기는 서구 드림파크 국화축제 현장입니다.
정민정 계양구 새벌로

아이들이 배다리에 떴어요!

아이들과 배다리 헌책거리에 놀러갔습니다. 인천의 역사와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헌책방. 새것만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얘들아, 우리 또 놀러가자~"
오영미 서구 여우재로

이 의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을 오르는 길에서 발견한 의자. 계단 속에 가려져 있어서 오르는 길에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의자의 주인이 되어 보는 건 어떠세요?
김숙연 계양구 안남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여기가 어디?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있어요.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 아시아문화관
박성갑 서울시 관악구 / **김대섭** 부평구 장제로
윤월선 서구 청라커낼로 / **김민정** 서구 서달로

인천냄새 간간하게

배인 그곳

인천을 이야기 할 때 꼭 '짠내'가 빠지지 않는다. 소래포구는 인천의 짠내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지역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가려져 잠시 주춤했던 그 내음이 수인선을 타고 부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근 어시장은 김장철을 맞아 그 냄새를 진하게 뿜어내고 있다. 갯냄새 풍성한 그 길을 인천 고양이 '도도'와 함께 달려본다. 생선 시장이 많아 그게 좀 걱정이다.

그림 · 글 ·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지하철 노선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짧은 노란 줄이 수인선이다. 수인선은 본래 '수인선 협궤열차'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먼저 이름을 내놓았다. 인천과 수원을 잇던 수인선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0년 가까이 서민들의 발이 돼 달려왔다. 2m 남짓한 폭의 이 꼬마 열차는 심하게 흔들리면 앞사람과 무릎이 부딪혔다고 한다. 1995년,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 협궤열차. 그 흔적을 찾아 나선다. 소래를 찾는 사람들의 즐거움 중의 하나는 옛날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되던 철교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예전에 어부나 염전 인부를 실어 나르던 120m의 바다 위 철교는 이제 관광객들의 차지가 되었다. 흔들흔들 아슬아슬, 오래된 철교가 오늘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다. 철교 옆으로 댕구산이 있고 바다 쪽으로 장도포대(시 유형문화재 제19호) 공원이 조성돼 있어 여유로운 포구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바다 내음이 스민 철길에서 내려오면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에 다다른다. 삶의 냄새 물씬 나는 싱싱한 풍경이 있는 곳이다. 어시장에는 350여 개의 어물전이 난장처럼 자리 잡고 있다. 생새우와 육젓, 추젓 등 온갖 젓갈류를 싼값에 그리고 푸짐하게 구입할 수 있고 사시사철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길게 이어진 천막지붕 밑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어간다. '잠시만요, 구루마 지나가니 비키세요~' 외침이 들릴 때면 모세의 기적마냥 없던 길이 시원하게 생기기도 한다.

회를 파는 상점이 늘어선 곳엔 상점을 따라 길게 돗자리가 깔렸다. 사실 돗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노상에 깔고 앉은 사람들은 바닷바람에 흥겨워 주거니 받거니, 초고추장에 회 한 점을 푹 찍고는 한잔 들이킨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갈매기도 배고프다. 바다와 맞닿은, 방금 잡은 생선을 널어놓은 곳은 갈매기들의 표적. 가만히 지켜보니 슬쩍 눈치를 보던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생선 한 마리를 입에 구겨 넣는다. 꿀꺽. 그걸로 끝이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인들은 손님몰이에 정신이 팔렸다. 이렇듯 가을 포구는 인간이든 미물이든 다 배부르다.

인파를 비집고 나와 포구 옆 건너 한적한 길로 향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그곳은 소래의 또 다른 면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염전, 갈대, 갯벌… 원시적 자연이 펼쳐진다. 조금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어디서 자전거를 가져오나 했더니, 습지생태공원 입구부터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자전거 타고 공원을 둘러본다.
정돈된 길을 따라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내 앞머리를 가르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바람 사이에 어김없이 짠내가 섞여 콧속으로 들어온다. 길 양쪽으로 갯벌이 뻗어있다.
오른쪽에선 갯벌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습지의 생태는 발가락 사이를 뚫고 나와 전신으로 퍼진다. 뻘이 잔뜩 묻은 손을 옷에 스윽 닦고는 그 손으로 다시 얼굴을 닦는다. 회색빛으로 온몸이 젖어 들어가면 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인천은 소금의 고장이었다. 1907년 주안염전을 시작으로 남동염전, 소래염전이 조성돼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인천의 짠물과 햇볕으로 만들었다. 1960년대 주안과 남동지역이 공업지대로 개발되면서 소금밭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햇빛에 검게 그을린 염부들은 공장 노동자로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버텨오던 소래염전이 마침내 1996년 7월 30일 문을 닫게 된다.

염전학습장

그나마 염전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시즌이 되면 말 그대로 학습용으로 소금을 생산한다. 바둑판 모양의 염전에서 바닷물을 퍼올리는 물레방아 모양의 수차(水車) 돌리기도 해볼 수 있다. 특히 소금을 채취하는 시간에는 염부들과 함께 직접 가래질을 하며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학습장을 조금 지나면 붕어와 잉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담수연못이 있다. 다리 쪽으로 향하면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게와 조개 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찰할 수 있는 갯벌체험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소래염전과 풍차 세 대가 보인다. 96년까지만 해도 소금을 만들어내던 소래염전은 폐염전이 되었다. 지금은 체험학습을 위해 남아 이따금씩 소금을 생산해내고 있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전시관으로 오른다. 영상과 사진자료들로 채워진 전시관은 습지 생태를 학습하고, 관찰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꾸며졌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생태의 모습을 엿보며 날이 따듯해지면 다시 찾아올 날을 기약하기도 한다.
전시실 옥상에 오르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저 멀리 아파트가 만들어낸 능선을 배경으로 생태공원의 그림이 완성된다. 지금껏 보았던 소래포구의 시끌벅적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평온하고 일상적인 그곳이 체험학습을 하는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2013 Incheon
제94회 전국체육대회
The 94th National Sports Festival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다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인천을 뜨겁게 달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화가 꺼졌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은 금 74, 은 60, 동 117개를 수확해 총득점 5만 2천928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우리시는 이번 체전을 우수한 대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인프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오는 2014년에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이끌 것이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년 9월, 이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환히 비춘다.

성화봉송(박태환, 이시영 선수)

걸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글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는 인천둘레길추진단이 있다. 추진단의 상임회장직을 맡은 덕에 인천의 둘레길을 걷는 일이 많아졌다. 주말이면 가까운 산을 걷고 자전거를 타는 일이 습관화 되어 둘레길을 걷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얼마 전 인천둘레길 아카데미 수료생으로부터 '걸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문구의 붓글씨 한 점을 받았다. 둘레길을 걷다보면 정말로 보이는 것이 많다. 같은 길이라도 두 발로 길을 걷다보면 자동차로 스쳐 지날 때와는 다른 모습과 향기가 있다는 것을, 둘레길을 걸으면서 알게 되었다. 같은 길인데도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이 있고 다른 이야기가 스며있었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으로 생활해 온 우리가 본 인천의 모습은 건물 중심의 회색도시였다. 그러나 회색도시라고 여겼던 도심 뒤편의 골목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마을 뒷동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또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 인천의 한남정맥인 계양산에서 청량산까지 인천지역 S녹지축을 따라 펼쳐진 산 둘레를 오르내리면, 맑은 계곡이 있고 살아있는 하천이 흐른다. 또한 비록 매립으로 해안가 절반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갯골이 있고 포구가 있어서 인천이 해안도시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걷다보면 보이는 것이 어찌 풍경뿐이랴. 길섶에 핀 야생화가 언제 어떻게 피며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고, 곳곳의 마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마을에서 어느 분이 태어나 어떤 일을 했다는 미담을 들을 수 있다.

인천둘레길을 걷다 보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인천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여럿이 삼삼오오 모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걸으면 더 좋다. 둘레길을 걸으면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자연을 예찬하고 우리의 삶터인 인천에 대한 애정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인천둘레길을 예찬한다. 인천둘레길을 걷자. 걷다 보면 인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인천에도 아름답고 멋진 도시의 풍경과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애향심과 자긍심이 피어오를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안될 이유가 없잖아?

21세기에 모든 활동의 기준이 돌봄이 된 적이 있었는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면 왜 안되는가? 왜 두려움과 불신에 의해 야기된 모든 일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가? 지속가능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창조적인 세계는 왜 안되는가?

– 라라 드하인첼린 〈바람직한 미래〉 한글번역본 서문 중에서

라라 드하인첼린은 현재 브라질 창조적 미래 운동(Crie Futuros Movement) 창설자. 브라질 창조적 경제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창조적 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델에 관련된 문화, 예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오늘도 난 '안될 이유가 없다'는 그의 격언을 가슴에 새긴다.

뇌 운동, 하나둘 하나둘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
게임에 빠지면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전기의자에 앉아서 죽은 사람보다
안락의자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걷기는 다리 운동이라기보다 뇌(腦) 운동입니다.
자, 운동화를 신으세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인천에는 가을 깊은 뇌 운동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